

이소나, 눈물의 대역전극... '미스트롯4' 眞(종합)

등록 2026.03.06 08:29:42



[서울=뉴시스] 이소나. (사진 = TV조선 '미스트롯4' 캡처) 2026.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이소나가 TV조선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미스트롯4' 주인공이 됐다.

이소나는 5일 방송된 '미스트롯4' 결승전에서 진(眞)을 차지했다.

이소나는 실시간 문자 투표 총 111만784표(유효표 91만6030표)에서 25만6310표를 획득하며 1000점 만점을 기록했다. 득표수가 전체 27.98%에 달한다.

이소나는 마스터 점수에선 1572점으로 허찬미(1583점), 길려원(1579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온라인 응원 투표에서도 400점 만점을 받아 중간 순위 2위로 올라왔다. 실시간 문자 투표까지 만점을 받으며 역전극을 빚어냈다.

국가무형유산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인 이소나는 20년 넘게 국악계에 몸 담았다. 시원시원한 고음이 장점이다.

이소나는 최종 진으로 이름이 호명되자 무대에서 주저 앉아 오열했다. 객석에서 지켜보던 남편과 어머니 역시 폭풍 눈물을 쏟아냈다. 중간 순위 2위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진을 차지하며 막판 역전에 성공한 이소나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많은 희생을 해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엄마 이제 내 걱정 하지마"라며 우승 상금 3억 원을 부모님을 위해 쓰고 싶다고 전해 몽클함을 안겼다.

이소나는 패티김 '사랑은 생명의 꽃'을 인생곡으로 꼽았다. '미스트롯' 도전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터 예심에 진출한 시즌에서 진의 왕관을 쓰게 된 그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효심을 드러내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서울=뉴시스] 이소나. (사진 = TV조선 '미스트롯' 캡처) 2026.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이소나는 빈틈없는 무대로 시 같다는 평을 듣기도 했지만, 이날 어느 때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열창했다. 마스터 장운정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참가자다. 오늘 이런 무대를 보고 싶었다"라고 호평했다.

선은 2825.72점을 받은 아이돌 출신 허찬미가 차지했다. 미는 가야금 병창 홍성윤이다. 대학생 신예 길려원이 4위, 현역 18년 차로 미스트롯에 재도전한 윤태화가 5위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 전국 기준 시청률은 18.1%를 나타내며 전주 대비 1.7%포인트 상승,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유종의미를 거두게 됐다.

미스트롯 톱5을 비롯 윤윤서, 염유리 등 톱7은 콘서트를 함께 돈다. 오는 12일 오후 10시엔 '미스트롯4' 예능수련회가 방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